



“아지랭이 피는 봄 민속춤의 멋과 흥

▶ 국립민속국악원 토요초대석
복미경의 춤 '봄의 노래'

장구장단의 긴장 잘 나타내는 설장구춤
신비롭고 환상적인 교방굿거리춤 등 선배

2017 토요국악초대석'은 매주 다른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둘째주 풍류마루에서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 단원들이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로 마련했다.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오는 11일 오후 3시 2017 토요국악초대석에서는 복미경의 춤 '봄의 노래'가 예음헌 무대에 오른다.

현재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복미경 안무자는 관소리 춤극 '춘향을 따라 걷다', '심청이 울었다', '토끼야, 너 어디 가니?', 정기공연 '무본' 등 대표적인 작품에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 '수요출전' 무대에서는 지방국악원을 대표하는 무용수로 발탁되어 민속춤의 진수를 보이는 특별한 공연을 선보였다.

주요이력으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이수자,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 국립남도국악원 무용단 안무자를 역임하였다.

'봄의 노래'에서는 장구장단의 긴장과 이완을 잘 나타내는 설장구춤, 정·중·동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교방굿거리춤,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태평무, 특히 '살풀이내

영혼의 노래'는 한영숙류 살풀이를 복미경 안무자의 해석으로 다시 창작된 작품으로 기타리스트 박석주의 기타산조 음악에 맞춰 흥미로운 춤을 관람하게 될 것이다.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은 총 100석 규모의 소극장으로 매회 선착순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연은 전석무료이며, 전화(063-620-2328)로 예약이 가능하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상영작 마린 두 광대들의 열정과 삶

-쇼콜라-
세상 뒤집은 아티스트의 비밀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
운명처럼 온 아이와 사랑
-파도가 지나간 자리-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3월 둘째 주 상영작으로 퀴비에르 형제의 영화속 주인공 이야기 <쇼콜라>, 세상을 발각 뒤집은 아티스트의 비밀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 운명처럼 온 아이와 사랑의 모습을 담은 <파도가 지나간 자리>를 마련한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야외상영작인 <쇼콜라>는 19세기 말 프랑스 최초의 흑인 광대 '쇼콜라'와 진정한 예술가를 꿈꾼 백인 광대 '푸티트'의 열정과 삶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는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 출신의 감독 로슈디 짜이 연출을 맡은 작품으로 퀴비에르 형제의 흑백 필름 '쇼콜라와 푸티트의 시소 의자'속 주인공인 쇼콜라와 푸티트의 실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감독은 영화를 통해 무대 안과 밖의 치열한 이야기를 드러내며, 두 남자의 운명 같은 만남과 기적의 무대를 재연했다.

<언터처블: 1%의 우정>의 오마 사이가 '쇼콜라' 역을, 찰리 채플린의 외손자 제임스 티에레가 '푸티트' 역을 맡아 환상적인 연기호응을 선보인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코리아 시네마스케이프 상영작으로 화제를 모은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는 어느 날 눈을 뜨니 세상을 발각 뒤집은 아티스트로 탄생한 지젤과 갤러리 대표 재벌의 대립 속에서 예술에 관한 재치 있는 물음을 던지는 작품이다.

또 관객설문조사 반영작 <파도가 지나간 자리>는 외딴 섬의 등대지기과 그의 부인이 두 번의 유산 후 운명처럼 파도에 떠내려 온 아기를 키워가던 중, 아이가 친엄마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의 원작은 2012년 출간된 ML, 스테드먼의 <바다 사이 등대>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신수미)는 전북 여성의 능력개발과 자력증 취득, 건전한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7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영상이 완성되는 증강현실로 만나는 입체 캐릭터, 3D프린팅을 이용한 고가구 미니어처 제작과 '코딩지도사'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지난 교육에서 높은 호응을 보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드론 날리기는 오는 25일에 2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혼남인의 만찬, 영유아미사지, 퍼스널 컬러와 셀프 메이크업 등의 신규 프로그램도 개설된다.

교육은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7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후 가상 계좌 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정치·경제에서 느끼는 감정, 캔버스에 그대로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무료대관 첫 전시 'Grey Matter'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정정숙)은 팔복예술공장 무료대관 첫 오픈전시로 Jeonju Artists Coalition 팀의 'Grey Matter' 전을 갖는다.

Jeonju Artists Coalition은 4개국(미국·캐나다·영국·남아프리카 공화국)·8명의 외국인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 2008년부터 전시회를 열어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은 오늘날의 정치·경제 및 투쟁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화색물질, 즉 'Grey Matter'라는 주제로 보여 준다. 사진·수채화·회화·팬아트·자수 작품 등에는 일종의 해방이 녹아난다.

Anje Di Santo작가는 버려진 공간과 사물에서 찾은 본연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사진을 통해 표현한다.

Bonnie Cunningham작가는 소통과 고립간의 흔들림을 Bonnie작가의 자화상에 담아낸다.

Sebastian Montes는 복잡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변화하는 현실과 우주를 작품과 관

련짓는다. 작가가 만드는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 아닌 상징적이고 직관적으로 표현된다.

만화·대중문화·자연을 작품에 반영하는 Daniel Kilduff는 흑백의 대조, 초상화의 그림자, 실루엣 등의 이미지를 연필과 잉크로 짙어 그려낸다.

Derek Finn은 펜·연필·물감 및 마커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 상상력을 현실화한 이미지를 선보인다.

Greg Timlin은 전북 곳곳에서 발견된 허수아비를 사진으로 찍어 전시한다. 민속에 숨겨져 있는 매력과 허수아비 너머에 있는 비밀스러운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Leela Bear는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자수 작품을 전시한다. 어두운 천을 사용해 작업하는 작가는 연약하고 어둡지만, 동시에 밝음과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초상화에 비유를 둔 Sarah Hodgkiss는 한국사회의 변화, 직업윤리, 여성의 역할, 의



국인에 대한 인식, 전통 등 변화의 최후에 있는 문화를 작품 속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재단의 산업단지 및 폐산업 시설 문화재생산업의 일환으로 팔복동 제1산단 내에 조성되고 있는 팔복예술공장 2층 전시공간에서 11~19일 열린다.

**전시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정해은 기자

소리문화전당, 유랑극단 희망단체 모집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도내 각 지역의 균등한 문화향유 혜택을 위해 공공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랑극장'의 희망 단체를 모집한다.

유랑극장은 희망단체와 협의를 통해 공연 장소 및 대상을 선정하고 클래식·국악·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맞춤형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2017 유랑극장은 전주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군의 문화회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접수 받는다. 단, 정치·종교·상업적인 목적의 단체는 신청이 불가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정해은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